



**마태복음28:1-10(막16:1-8)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막16:1)**

막16장1절에서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16:3절에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라고 합니다.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이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갖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2. 빈 무덤을 보게된 사람들(2~6)**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무덤에 도착한 이들은 무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땅의 흔들림과 함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2), 다음으로 이들이 찾던 주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6), 마지막으로 무덤을 떠나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9). 단지 주님의 시신을 보고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 갔는데,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가 기대한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달음질하는 사람들(8-10)**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무덤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이전 무덤과 상관없이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알리기 위해 달음질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의 사실을 알리려고 달음질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에 의해 시작된 부활 신앙의 릴레이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다른 지역으로 넘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고,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안식후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을 보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그들은 달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